

##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

이 병 훈\*\*

- I. 머리말
- II. 17~18세기 근암서원의 재원 확보 노력
- III. 18세기 유생 강학과 운영
- IV. 근암서원의 정치·사회적 활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문경 근암서원은 16세기 중반 상주목사 신잠이 건립한 죽림서당에서 발전하였다. 근암서원은 7인의 유현을 제향하면서, 그들의 후손과 산양현 유생들의 협조로 운영되었다. 어느 특정 가문이 주도하지 않았기에 여타 서원과 달리 문중 서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운영 주체의 부재로 적극적인 지원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건립 이래로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였기에 지방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얼마 안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13). 이 논문은 필자가 <16~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고찰한 것이다. 논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두 주제로 나누어 변천에 대해서는 『영남학』 71집(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에 소개하였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yukhl@ynu.ac.kr

되는 노복과 원속들이 수시로 군역에 차정 되었으며, 전답이 부족하여 양안에 등록되지 않은 황무지를 획급 받기도 했다. 그렇기에 즉립서당 시절 획급 받은 인근의 미면사는 규모가 작았음에도 서원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치폐를 거듭하고 소유권 분쟁까지 일어나면서 안정적인 서원 운영이 어려웠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근암서원은 유생들의 강학을 인근의 영빈서당과 분담하였다. 근암서원은 유생들의 거재와 강회를 주도하고, 영빈서당과 더불어 거접과 순제를 시행하면서 물력을 보조하는 등 문풍 진작에 일조하였다. 또한 『우암집』과 『한음집』을 간행하면서 제향자인 홍언충과 이덕형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주제어

근암서원, 영빈서당, 미면사, 청대일기, 근암서당창건고적

## I. 머리말

한국의 서원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 해왔다.<sup>1)</sup> 그러나 개별서원에 대한 사례연구는 관련 자료들이 다수 남아 있는 각 지역의 거점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세기 말 대원군의 원사 훼손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및 산업화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관련 자료들이 망실되었기에 일반 서원에 대한 사례연구는 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개인소장 고문서와 전적 등이 조사·정리되어 공개되면서 일반 서원에 대한 사례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sup>2)</sup> 한국 서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 서원에 대한 사례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서원은 건립주체·제향인·경제적 기반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되는데 대다수가 일반 서원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제향인에 따라서 지방관과 鄕人, 門人 내지 후손 등이 공동 혹은 단독으로 건립하였다. 또한 제향인과 건립 주체의 위상에 따라서 賜額 유무와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사액서원은 관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해당 고을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鄕賢을 제향한 서원은 재지사족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성장과 쇠퇴가 두드러졌다. 특히 17세기 말 이래로 서원이 폭발적으로 건립되고, 제향인의 질적인 저하가 심화되면서 서원별 성쇠는 더욱 확연해졌다.

- 
- 1) 서원연구에 관한 추이와 연구사적 정리는 고석규,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외대사학』 창간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연구소, 1987 ; 정만조, 「최근 서원연구 동향에 관한 검토」,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등이 참고가 된다.
  - 2) 채광수, 「예안 분강서원의 창건과 청역활동」, 『석당논총』 7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 김순환, 「18세기 후반 상주 옥동서원 청역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 이해준, 「철곡 인동장씨 정사·서당·서원 건립 활동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 이경동, 「조선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 구분옥, 「녹봉정사 건립과 경영 및 철학」, 『한국학논총』 7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오늘날 서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연상하는 당쟁의 소굴 내지 良丁募入과 對民作弊 등의 수식어는 바로 17세기 말 이래로 점차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 당시에도 향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기구로서 서원이 지목되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禁令이 시행되었다.<sup>3)</sup> 금령 시행 이후 관의 지원이 축소 내지 단절되었지만 사족의 문벌 의식이 강화되면서 顯祖를 제향하는 서원과 사우 건립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기존 서원을 주도해왔던 院儒의 이탈과 분열, 향촌사회의 기득권을 둘러싼 대립은 서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금령을 피하여 기존 서원에 자신의 先祖를 追享하거나, 사우를 건립하여 서원으로 陞院하는 편법 등이 나타났다.

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서원 건립이 단절되지 않은 것은 서원이 가진 사회적 지위에 기인한다. 서원의 위상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곳에 제향할 만한 儒賢이 존재함을 의미했다. 또한 해당 고을 내지 가문의 文風과 성리학적 교화가 잔존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서원에 제향할 적합한 인물이 없는 고을의 유생들은 중국의 聖賢이나 지방관을 제향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sup>4)</sup> 명유를 제향하는 서원의 경우 금령과 공론,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서원을 건립한 후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액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5)</sup> 그 과정에서 막대한 물력을 소비한 후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제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문중 원사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여 제향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sup>6)</sup>

3) 정만조, 「조선 후기의 대서원시책 -남설문제를 중심으로 영조조의 서원철폐에 이르기까지」, 앞의 책, 1995, 249~300쪽.

4) 이수환, 「북한 지역의 서원·사우 현황과 송양서원의 위상」, 『포은학연구』 24, 포은학회, 2019.

5) 이수환, 「정몽주의 언양 적거와 울산 구강·반구서원의 설립」, 『포은학연구』 22, 포은학회, 2018 ; 「경주 龜岡書院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4, 조선시대사학회, 2005 ; 「울산 鵬江書院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 49, 대구사학회, 1995.

6) 이수환, 「조선 후기 안동 향리 권회학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 『대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근암서원은 조선시대 상주목 속현인 산양현에 있었다.<sup>7)</sup> 서당을 기반으로 금령을 피하여 사우로 건립되었다가 서원으로 발전한 곳이었다.<sup>8)</sup> 승원 후에도 두 차례 追享을 통해 모두 7인을 제향한 특정 가문의 문중서원도 아닌 독특한 유형의 서원이다.<sup>9)</sup> 근암서원은 서당 시절부터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여 승원 후에도 자력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렇기에 서원 인근의 유력가문들과 연계하여 이를 이겨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장을 역임하였던 권상일(1679~1759)의 경우 근암서원의 전신인 죽림서당이 있었던 곳에 설립된 수계소에 1783년(정조 7) 10월 17일 위패를 봉안하였다.<sup>10)</sup> 당시 상주목 내외에서 272명이 참석하고, 정

구사학』106, 대구사학회, 2012.

- 7) 본고에서 ‘문경 근암서원’이라고 칭한 것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따른 것이다. 조선시대의 근암서원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당시 행정구역인 상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현재의 상주권역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현재 소재지명을 사용하였다.
- 8) 근암서원의 변천에 대해서는 이병훈, 「16~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조선후기 서원 변천의 한 사례」, 『영남학』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가 참고된다. 이외에도 근암서원 제향 인물에 대해서는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에서 출간한 『청대 권상일의 생애와 사상』(2015), 『우암 홍언충과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사상』(2016), 『한음 이덕형과 사담 김홍민의 생애와 사상』(2017),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2018)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암서원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9) 근암서원은 서당에서 1665년 洪彦忠(1473~1508)을 제향하면서 향현사가 되었다. 1669년 李德馨(1541~1613)을 병향하여 서원으로 승원했다. 1702년 金弘敏(1540~1594), 洪汝河(1621~1678)를 추향하고, 1786년 李集(1613~1654), 李萬敷(1664~1733), 權相一(1679~1759)을 추향하여, 서로 다른 6개 가문의 인사들을 제향하고 있다. 이들은 상주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또한 그들의 후손들 역시 산양현과 그 인근에 분포하고 있었다. 『원임안』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각 인물들이 제향되는 시기에 따라서 해당 가문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근암서원은 19세기까지 특정 가문의 문중서원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로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건립 이래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10) 당시 권상일을 바로 근암서원에 추향하지 않은 사유는 확인이 안 된다. 근암서원에 이미 4인[부림홍 2·상산김 1·광주이 1]이 제향된 상태였기에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언을 지냈던 趙錫龍(1721~1793)이 초대 산장을 맡았다.<sup>11)</sup> 그러나 3년이 되는 1786년(정조 10) 11월 6일에 근암서원으로 위패를 이안하였다. 이때 이만부·이구 등도 함께 추향하였다. 이는 금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영남을 대표하는 유현을 제향하여 서원의 위상을 더 높이고, 나아가 이들 가문의 조력을 받으려는 서원 측과 서원에 선조를 제향하려는 후손들의 이해관계가 부합한 결과로 보인다. 이들의 추향으로 근암서원의 재정이 개선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는 일정한 도움이 되었다.

근암서원은 서당에서 출발하였고, 특정가문의 소유가 아니었기에 서원에서 분리된 穎濱書堂, 이전의 죽림서당을 활용한 修稷所와 더불어 산양현 유생의 강학처이자 遊息處로 인식되었다. 특히 영빈서당은 18세기 초반까지 遞禮에 6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지역 내에서의 위상이 높았다.<sup>12)</sup> 그런 만큼 근암서원과 유생들의 강학 활동을 분담하였다.

근암서원은 건립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상주 북부의 사론을 대표하는 곳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산양현의 유일한 서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산양 유생들의 여론을 대변하였다. 당시 근암서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는 원장들의 역할이 컸다. 홍이석, 이만부, 이천여, 오상원, 권상일, 이화국 등과 같이 전직 관료 내지 명망 있는 학자들이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들

---

11) 『駿奔錄-竹林 任員錄 合 癸卯 10月日』(청대 권상일 후손가 소장본). 당시 봉안식에 상주의 도남·근암·옥성서원 원임과 함창의 남계서원 원임을 포함하여 상주[산양·함창]지역 유생 260명과 안동·예천·군위·칠곡·선산·성주 등지에서 12명이 참석하였다. 「임원록」에 따르면 1783년 제향이후 1786년까지 山長 1인과 재임 2~3인을 두고 있다. 산장은 前正言 趙錫龍(1721~1793), 生員 蔡灑(1715~1795), 幼學 洪龍吉, 유학 蔡淶, 유학 高日就, 유학 申弘岳, 參奉 權復仁[권상일 손자], 유학 柳聖霖, 유학 李顯朝 등이 역임하였다.

12) 『청대일기』 계묘(1723) 2월 15일. 실제 서당과 수계소에 수십 명이 모여 회의를 하거나, 혹은 순제나 거접시의 시권을 채점하기도 했다. 특히 수계소는 산양현 향약을 주관하고, 耆老所 역할을 하면서 敬老會를 열기도 했다.(『청대일기』 정묘(1747) 3월 2일 ; 병자(1756) 11월 9일). 특히 수계소 경로회는 1748년(영조 24) 10월부터 개최한 것으로서 근암서원 별소와 영빈서당 별소에서 10십씩을 내어 봄·가을로 두 번 모임을 가졌다. 회원은 60살 이상으로 제한 하였다.(『청대일기』 무진(1748) 10월 6일)

은 서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원의 건물뿐만 아니라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근암서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18세기 중반까지 근암서원은 명망 있는 인사들을 구심점으로 결집하여 서원 내외의 현안을 처리하였다. 또 이들의 주도로 문풍을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강학 활동을 펼쳐나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염두하고 『近岳書堂創建古蹟』과 『淸臺日記』를 참고하여,<sup>13)</sup> 근암서원의 재원확보 노력과 강학 및 정치·사회적 활동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18세기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 17~18세기 근암서원의 재원 확보 노력

### 1. 서원전과 원속의 확보 노력

서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원임과 원생의 인적 기반과 토지·노비·院屬 등의 경제적 기반이다. 특히 서원전과 원노비처럼 서원이 소유권을 가진 경제적 기반을 다수 확보해야 제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17세기 이래로 도망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노비보다는 토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서원이 위치한 고을의 양인을 대상으로 원속을 모집하여 신공을 받아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거나, 서원전의 경작을 맡기면서 노동력을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관으로부터 屬店과 屬寺, 寺奴婢 등을 획득 받기도 했다. 이처럼 서원의 재원이 다양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였다.

13) 『근암서당창건고적』은 영남대 이수환 교수가 소장한 인쇄본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해제는 『한국서원학보』 8(한국서원학보, 2019)에 수록되어있다. 『청대일기』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15년 국역한 <일기국역총서 14~17>(전4책)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근암서원은 재원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여 관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경제적 기반은 근암서원의 전신이었던 죽림서당 시절부터 확인된다. 1597년(선조 30) 산양현 사림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소실된 죽림서당을 복원하기 위하여 황시간·채득강 등을 유사로 선발하고, 기존의 書堂奴 2구를 불러 이전의 서당 터에 거주시켰다. 그 후 상주목사에게 요청하여 屯田의 荒租 1섬[石]을 종자로 제공 받았다. 이것으로 縣內에 종자를 제공하고, 그 수확물을 식리하여 토지를 매득할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를 가지고 1599년(선조 32)에 현내의 논[畓] 2곳을 매득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노 1구가 군역에 차정되는 일이 발생하여 체찰사 이원익에게 청원하여 환속과 면역을 허가받았다.<sup>14)</sup> 1665년(현종 6) 향현사로 변화한 뒤에는 상주목사 朴承健(1609~1667)에게 수직을 위한 장정 2명의 획급과 원속[守直·庫直] 5인에 대한 군역 면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1669년(현종 10) 승원 후에는 관찰사 민시중에게 서원 전수와 유생 공례를 위한 속공노비 3구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승원 당시 근암서원에는 5인의 원속만 확인되며, 소유한 토지의 규모와 전래 노비 및 속공노비의 유무는 알 수 없다.

1730년(영조 6) 상주목사에게 올린 정장에서도 노비는 확인되지 않으며, 齋直·庫直 등 8인의 假屬만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충군되어 서원의 일상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서원 측에서는 상주목사에게 군역을 면제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734년(영조 10)에도 반복되었다.<sup>15)</sup> 이때는 募入한 院生들이 그러했다. 근암서원은 踏印을 받은 17인의 원생이 充軍錄에 오르자 상주목사에게 다른 충군들과 별도로 분류하여 면제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처럼 근암서원은 18세기 초반까지 양인 가운데 재지기, 고지기, 원생으로 소속된 자들만이 있었다. 또한 매년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들 원속의 군역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서당 시절부터 지방관의 도움이 없다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14) 『근암서당창건고적』, 「蔡西齋得江日記」.

15) 『근암서당창건고적』, 「庚戌(1730)呈牧伯文章」; 「甲寅(1734)七月呈牧伯文(權相夔)」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서원전도 마찬가지였다.

죽림서당을 증건하면서 마련한 논의 있었지만, 17세기 말에는 그것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699년(숙종 25)경 근암서원 도유사 趙泰胤(1642~1707)<sup>16)</sup> 등이 상주목사에게 보낸 정문을 보면, 근암서원은 건립 당시부터 가진 바가 적어서 향사에 쓸 한 이랑[畝]의 밭도 없기에 院事를 계획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sup>17)</sup> 즉 이 시기에 이르러 근암서원에는 어떠한 전답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승원 당시부터 경제적 기반이 미약했던 근암서원의 사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1699년(숙종 25) 이전의 몇 년 사이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가을에 얻는 것은 겨우 秋享을 지낼 정도이고, 春享에는 모든 재물이 고갈되어 환곡[官糶]을 꾸어서 매년 지내왔던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강학은 오래전에 단절되었으며, 서원의 재정을 확대할 계획도 세우기 힘들었다.

그래서 근암서원에서는 상주목사에게 山陽倉 서쪽 냇가에 있는 閑土를 넘겨주길 요청하였다. 그 땅은 서원과 가깝다는 점을 빼면 돌만 있는 미개간지로서 量案에도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원임들은 이런 황무지라도 준다면 모든 힘을 동원하여 개간한 후 이곳의 이익으로 춘추향사를 거행하고, 단절되었던 강습의 자금으로 삼아 絃誦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라 호소하였다. 이에 상주목사는 데깁을 내어 원임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들이 요청한 한토의 면적은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획급 받은 황무지를 개간할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8세기를 전후하여 노비는 1구도 없었으며, 가축들만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원내 사환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획급을 받은 것은 다른 방안을 강구했

16) 조태운의 증조부는 광주목사 趙翊이며, 증백조부가 黔澗 趙靖이다. 조태운의 후처인 양천허씨 백부가 許穆(1595~1682)이다. 趙泰胤은 경상도 관찰사 金演이 행의로 천거하였다(『숙종실록』 권43, 숙종 32년 3월 1일 기미). 조정의 현손이 趙灑(1666~1734)이며, 조해는 조태운(1642~1707)의 9촌 조카다. 또한 만사위 李弘仁은 李麟佐의 막내 삼촌이다.

17) 『근암서당창건고적』, 「呈牧伯文(趙泰胤)」.

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황무지를 획급 받고도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근암서원은 넉넉하진 않지만 원속·원생들의 身貢 등으로 향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초반 작성된 근암서원의 「院中完議」을 보면, ‘평소 사용하는 돈을 아껴서 알맞게 쓰고, 일정 부분을 들어내어 매년 땅을 사는 데 이른다면 선비를 공궤하는 양식과 반찬 및 賞을 주는 일에 보탠다’고 하였다.<sup>18)</sup> 이처럼 물력을 사용하는 방법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정한 것은 여전히 물력이 부족하여 원생 공궤와 장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일상비를 절약하여 땅을 매입하는 비용을 마련하려는 것을 보면 특별한 수익도 없었으며, 황무지 획급 이후 더 이상의 토지 확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원의 형편이 다소 개선된 것은 이전의 속사였던 米麵寺를 환속시킨 후부터였다.

## 2. 미면사 환속과 수조권 쟁송

상주목사 신잡은 죽림서당을 창건하여 유생들의 장수처로 삼은 후 부근의 작은 사찰을 소속시켜 공궤의 자본으로 삼게 하였다.<sup>19)</sup> 이 사찰이 미면사[현 산북면 소야리 공덕산]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사찰 건물이 모두 소실되고 전답도 망실하였다. 이에 면내의 유생들이 재목을 내고 몇 명의 승도를 모아서 중건하였다. 또한 사찰 주변 골짜기의 寺土土를 영원히 선비를 기르는 자본으로 삼기로 계획하고 立案을 받았다. 미면사에서 바치는 身貢과 위토에서의 수익은 서당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노비와 전답도 많지 않았기에 혹 승려들이 逃散한다면 신공뿐만 아니라 위토 경작 또한 큰 문제였다. 그렇기에 미면사 승려들이 雜役을 당하면 서당의 유생들이 매번 들고일어나 目訴하였다. 그래서 전후의 지방관들이 모두 그들의 의견을 따라 시종

18) 『근암서당창건고적』, 「院中完議」. “一. 每年 享祀時用錢 極其數多 自今以後 一依近來所用 毋得過濫 常用錢財 亦撙節除出 遂歲買土 以贍供土糧饌及賞格者.”

19) 『근암서당창건고적』, 「呈牧伯文(趙泰胤)」.

보호해왔다.

1682년(숙종 8)에는 미면사를 永屬하는 完文을 성급 받았다. 당시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원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690년(숙종 16) 상주의 풍산류씨 가문에서 미면사의 主山 쪽에 묘를 쓰면서 모든 승려들이 分散하여 사찰이 텅 비게 되었다. 이후 폐사가 된 미면사는 관에서 법당의 재목과 기와는 大乘寺로 이건하고, 법당 내의 불상과 鍾磬은 金龍寺로 이속시켰다. 그래서 허물어진 집만 남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근암서원도 물력이 잔폐해지고 강학도 폐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1718년(숙종 44)에 흘러들어온 승도들이 무너진 집을 修葺하고, 점차 좌우의 골짜기에 전답을 일구었다. 토지와 노비가 없었던 근암서원은 미면사의 還屬이 매우 절박하였다. 이에 산양 유생들은 상주목사 鄭思孝(재임:1716.7~1718.9)에게 이전과 같이 미면사를 근암서원의 속사로 해주길 요청하였다.<sup>20)</sup> 이들은 처음부터 미면사는 근암서원의 소속이었으므로 서원에서 推尋해서 이전처럼 養士의 자급에 더하는 것이 事理에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원의 절박한 형세를 살펴 미면사를 소속시키는 데김[題音]을 내려주길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에 근암서원 유생 蔡九甲 등이 순상 李堞에게 올린 정문을 보면, 상주목사 정사효는 유생들의 요구대로 미면사를 영속시키는 판결을 내렸다.<sup>21)</sup> 이에 원유들은 관찰사의 데김까지 받아 미면사에 대한 소유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했다. 원유들은 복원한 미면사를 서원에서 추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감영에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면 미면사를 소속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 상주목사의 데김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것에 의거하여 관찰사는 데김을 내려 미면사를 근암서원에 소속시키고 문부에 懸錄하였다. 미면사의 소유권을 상주목과 경상감영에서 모두 인정받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1721년(경종 1)경 미면사 位田을 둘러싼 분쟁이

20) 『근암서당창건고적』, 「呈牧伯文(山陽儒生)」.

21) 『근암서당창건고적』, 「呈巡相文(蔡九甲)」.

발생하였다. 근암서원은 미면사를 소속시킨 후 「원중완의」를 제정하고, 강학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서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가장 큰 재원이었던 미면사와 그 위전에 대한 수조권 분쟁은 서원의 사활이 걸린 것이었기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쟁송은 미면사 소속 승려 名作이 스스로를 풍산류씨 가문의 산지기임을 자처하고, 근암서원이 소속시킨 미면사와 그 위전이 류씨 가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풍산류씨 가문이 개입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근암서원 측에서는 두 차례 정소를 통해 승려 명작의 단독 계약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반박 근거와 그의 범죄 전력을 제시하였다. 자신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이고 명작의 주장이 사욕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먼저 근암서원 유생 李錫奎 등이 상주목사 趙正萬(재임:1719~1722)에게 승려 명작의 주장을 반박하는 정소를 올렸다.<sup>22)</sup> 이들은 宋代 崇安縣의 知縣이었던 趙抃(1008~1084)이 유생들의 공궤를 위해 경내 사찰 소유의 위답을 學舍에 붙여주어 문풍이 되살아났다는 故事를 인용하여 상주목사 역시 그를 따르길 원했다. 그리고 상주의 靑鶴寺와 용궁의 旴川寺가 각 고을의 향교에 속사로 있었다가 승려들이 도산한 후 그 건물과 위전을 몰수하여 향교에 편입된 사례를 말하였다. 원유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유생 勤學을 위한 지방관의 흥학책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미면사와 그 위토에 대한 권한이 근암서원에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반면 명작은 관에 의해 미면사가 철거된 후 남아있던 허물어진 집을 류씨가문의 齋舍라 하고, 흘러들어온 승려들을 류씨가문의 산지기라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에 대하여 이석규 등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첫째 미면사가 서원 소속이라는 상주목과 감영의 문서가 있으며, 둘째 미면사의 불상과 건물을 옮겨간 김룡사와 대승사에서도 감히 골짜기의 위토에 대해 쟁송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본래 류씨가문의 재사가 있

22) 『근암서당창건고적』, 「呈牧伯文(李錫奎)」.

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 넷째 명작의 주장이 이치에 어긋남이 많기에 같이 거주하는 승려들이 정소 하는데 한 명도 연명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외에도 예천 蒼池庵이 소실된 후 그곳의 위토를 사찰의 땅이 아닌 것으로 현록하려고 했던 전력이 명작에게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서 명작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상주목사가 事目的 현록을 살펴보고서 유생들의 뜻을 따라주길 요청하였다.

이석규 등의 주장에 상주목사의 판결이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근암서원 유생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더욱 강화하여 재차 상주목사에게 정소하였다. 근암서원 유생들은 상주목사에게 재차 정소하여서 명작의 말이 이치를 곡해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듭 반박하였다.<sup>23)</sup> 첫째는 그가 사리를 곡해하는 것이 심하여 같이 거주하는 승려들조차 그가 정소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김룡사와 대승사도 그 골짜기의 땅이 근암서원 것이라는 것을 여러 문권에서 알 수 있기에 감히 쟁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셋째는 밖으로는 사찰의 위토라고 적었으나, 안으로는 자기 멋대로 경영할 계획이라는 것, 넷째는 스스로 류씨가문의 墓주이라 하며 학공의 토지를 빼앗으려고 하나, 문적에서 송사를 거는 사유가 하나도 옳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내 각 사찰의 모든 승려들도 미면사의 소송에 간여하는 데가 없으며 모두 명작을 배척하여, 대승사와 김룡사에서는 서원에 스스로 와서 글을 바치고 南長寺[현 상주시 남장동]·北長寺[현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천주산]·東關菴[현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에서도 글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근암서원에서는 이전의 판결에 의거하여 학공이 잔폐하는 것을 막아주길 거듭 요청하였다. 이 소송에 대한 상주목사의 판결은 확인이 안 된다.

다만 등서된 자료에 데깁이 없다는 것과 상주목사 조정만이 兩宋의 문인으로서 노론의 핵심인사였다는 점, 소송이 발생한 당시 노론계 유지

23) 『근암서당창건고적』, 「呈本州文(民等)」.

술의 처벌을 위한 영남 남인계 유소의 소청이 근암서원에 설치되었었다는 점 등에서 남인계로 분류되는 근암서원 유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유생들의 거둬진 요청과 이전 수령의 판결, 주변의 유리한 정황, 흥학이라는 수령의 기본적인 임무, 승유억불이라는 조선왕조의 방침에 의해 미면사와 그 위도에 대한 수조권이 근암서원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근암서원은 전답의 매득, 노복과 원생·원속의 면역, 속공 노비 및 미개간지, 속사의 획급 등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였다. 전답을 매득한 자금도 상주목사가 지급한 종자에서 기인하는 바, 서원 재원 마련에 상주목사와 관찰사 등 지방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 서원내의 강학도 단절되었었다. 강학이 재개된 것은 1720년(숙종 46) 이후였는데 바로 미면사를 환속한 뒤였다. 이를 보더라도 근암서원의 재원 가운데 미면사의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723년(경종 3) 이래로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유생 강학을 영빈서당과 분담하여 비용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18세기 근암서원의 강학과 운영

#### 1. 근암서원과 영빈서당의 강학 분담

17~18세기 초반의 상주지역은 향교-서원-서당이 유기적으로 유생 교육을 담당하였다. 표면적으로 상주목 유생 교육과 교화의 중심은 향교였으나, 그것의 실제적 주체는 도남서원이었다. 여기에 남쪽의 옥성서원과 북쪽의 근암서원이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각 면 단위에서는 서당이 해당 면의 유생 교육과 공론을 취합하는 하부단위로 운영되었다.<sup>24)</sup> 이

24) 실제 옥동서원의 승원과 사액 과정에서 서당은 각 면 단위의 공론을 형성하는데 중요

가운데 신잠이 건립한 서당은 옥성·근암서원과 같이 18세기 들어 陞院하는 사례가 많았다.<sup>25)</sup> 그러한 서당은 유생 장수를 위한 강학과 科業을 준비해온 곳들이었다. 또한 승원한 후에도 서당을 폐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산양현에서는 17세기 중반까지 수계소와 영빈서당이 사론 형성과 강학의 중심처였다. 하지만 근암서원이 설립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서원의 지위가 높았음에도 이처럼 현내 유생의 교육과 여론 수렴을 분담한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였던 근암서원은 정기적인 향사와 강학뿐만 아니라 건물의 증·개수, 책판 간행·보수 등을 진행하면서 17세기 말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그 결과 강학 활동도 중단 되고, 삭망례는 초하루에 원임만 분향하도록 했다.<sup>26)</sup> 근암서원 설립 후 분리되었던 영빈서당도 2차례 이건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현내에서는 강학뿐만 아니라 科文을 권장하는 것도 폐지되었다.<sup>27)</sup>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산양현 사람들은 居接, 居齋, 旬製, 講會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풍을 진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접과 거제는 형편에 따라 근암서원과 영빈서당에 나누어서 시행하였다.<sup>28)</sup> 서원과 서당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양현

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서당의 위상이 높았고, 유생들의 출입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김순환, 「18세기 후반 상주 옥동서원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25) 1749년(영조 25) 권상일이 찬술한 『상산지』(청대본)에는 모두 24개소의 서당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양서당은 옥성서원(1631, 김득배·신잠)으로, 봉암서당은 鳳山書院(1708, 노수신)으로, 봉성서당은 雲溪書院(1711, 성람·신석빈 외), 지천서당은 淵巖書院(1702, 朴彥誠·金彥健·康應哲), 매암서당은 芝岡書院(1745, 鄭國成·趙又新·曹希仁·曹挺融)으로 승원하였다.

26) 一. 每月朔望齊會參謁 固是學宮盛事而 顧緣供億之難堪 只行朔日之焚香 則揆以事體亦甚未安 今依他學宮例 院任焚香時 勿邀他員以啓 望日中廢之患.(『근암서당창건고적』, 「원중완의」).

27) 『청대일기』 계묘(1723) 5월 2일.

28) 『청대일기』 경인(1710) 7월 26일.

에서는 유생 강학에 있어서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두 곳의 유래 즉 영빈서당의 전신이 근암서당이었기 때문이다. 근암서당은 향현사를 거쳐 서원으로 승원한 후에도 한동안 서당을 옮기지 않고 함께 존속했다. 그러다가 1687년(숙종 13) 죽림으로 근암서당을 옮겨 수계소와 합쳤다가<sup>29)</sup> 다시 潁水가로 이진하여 영빈서당으로 독립하였다. 이후 1730년(영조 6)에는 출입하는 유생들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대적으로 증건하였다.<sup>30)</sup> 이처럼 근암서원과 영빈서당은 함께 운영되기도 했으며, 분리된 후에도 거리가 가까웠기에 산양현 유생들은 서원과 서당을 오가며 강학과 유식처로 이용하였다.<sup>31)</sup>

그러나 권상일은 서원과 서당의 역할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서원에서는 강학을 서당에서는 과문을 위주로 공부할 것을 제안했다.<sup>32)</sup> 이는 서원을 건립한 본연의 목적을 지키고, 서당의 기능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과거가 없을 때에는 순제를, 과거가 있을 때에는 거접을 하기로 장로들과 합의 하였다.<sup>33)</sup> 이것은 영빈서당이 주관하고 근암서원

29) 『상산지』, 서당, 「영빈서당」.

30) 영빈서당은 산양현 사림의 거접 활동의 중심처였다. 일반적으로 거접이 과거를 준비하는 것이었던 만큼 많은 유생들이 참여하였다. 거접 장소는 인근의 대승사·김룡사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서당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서당을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1730년(영조 6)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수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당시 정당은 6칸, 동·서협실 각 2칸, 동재 4칸이며, 正門을 세우고 문의 좌우에 廊舍를 두면서 學舍의 규모를 갖추었다. 양쪽 협실은 좌측을 尊性, 우측을 進修라 하였다. (권상일, 『청대집』 권11, 기, 「영빈서당중수기」). 영빈서당이 산양현 사림들의 강학 중심처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은 1732년(영조 8) 관찰사가 勸獎의 밀천으로 삼도록 영빈서당에 租 2섬을 내려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청대일기』 임자(1732) 5월 4일). 당시 반계서당은 1섬을 받았는데, 이는 유생의 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1) 근암서원과 영빈서당은 단순히 강학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었다. 유생들이 친목을 위해 결성한 修稷의 장소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인근의 사림들은 근암서원과 영빈서당에서 친목 모임을 갖기도 하고, 詩會(文會)·거접·거제 등을 열기도 했다. 이는 17세기 상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黃緬(1600~1670), 鄭道應(1618~1667), 全翼壽(1615~1683), 柳千之(1616~1689), 李英甲(1622~1677), 安道徵(1616~1678) 등의 문집에서도 확인된다.

32) 『청대일기』 계묘(1723) 5월 1일·2일.

33) 『청대일기』 무진(1748) 4월 29일.

이 보조하였는데, 역병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근암서원이 주관하기도 했다.

산양현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권상일의 발언은 이후 서원과 서당의 강학 방법을 구분 지었다. 일정기간 동안 유숙하며 경전과 성리서를 강학하는 거재는 서원과 향교에서 시행하였다. 향교에서 주관하는 거재는 상주목의 모든 유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향교 내에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서 유생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숫자와 날짜를 정하여서 각 서당에 배정하였다.<sup>34)</sup> 서원은 도남서원과 같이 상주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전 유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근암서원과 같이 소규모 서원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근암서원 「원중완의」를 보면, 1719(숙종 45)~1720(숙종 46)년경부터 정기적으로 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sup>35)</sup> 근암서원은 入學 유생을 20명으로 제한하고, 11월 초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하되 매회 5일간 진행하였다. 이는 다른 서원의 사례와 같이 윤번하면서 1회에 최대 20명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학하는 유생들은 각 가문에서 족세에 따라 가감하여 보내도록 했다. 특별히 참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외관상 상주목 전체 가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시 서원의 건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유생들의 자율적 수학을 강조하고 있었기에 상주목 북부의 외곽에 위치한 근암서원까지 오는 유생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산양현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부림홍씨(홍인충·홍여하)·광주이씨(이덕형)·상산김씨(김홍민) 등의 후손가와 안동권씨(권상일), 인천채씨(채득강), 장수황씨(황시간), 전주이씨(이구), 개성고씨(고인계) 등의 가문에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재에 참석한 유생들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뜻을 세워 스스로 단속

34) 『청대일기』 갑진(1724) 9월 24일.

35) 1719~1720년경에 작성된 「원중완의」는 모두 14개 조항으로 거재, 향사, 원입선발, 유생공계, 전·현직 원입 예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1732년(영조 8)에 작성된 學規가 있었지만 현전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 (권상일, 『청대집』 권11, 발, 「近院學規跋」).

하는 것을 우선시 하였다. 또한 학업에 노력하지 않고 익살스런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 사람을 방해하면, 정도에 따라 서로 권면하거나 儒罰에 처하도록 했다. 거재를 마치면 모두가 술을 나눠 마시던 풍습이 있었지만 이를 완전히 금지하고, 입학했던 유생들은 매년 초봄에 한번 詩賦나 論策으로서 재주의 높고 낮음을 시험하되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을 주어 학업에 집중하도록 했다.<sup>36)</sup> 이처럼 근암서원 거재는 개인의 수양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 가문을 대표한다는 점도 있었기에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거접은 주로 과거가 있는 해에 진행되었다. 과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학문을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청대일기』를 참고하면 산양현에서는 1704년(숙종 30)부터 거접을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근암서원과 영빈서당에서 나누어 시행하였는데, 산양현과 인근 고을에서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1723년(경종 3)에는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755년(영조 31)의 경우에는 100명 가까이 참여하였다. 이들 거접유생은 산양현 뿐만 아니라 함창·용궁·예천·상주·풍산 등으로 참여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sup>37)</sup> 이는 근암서원·영빈서당에서 주관하는 거접의 수준과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38)</sup>

36) 一. 入學儒生 怕供二十員而始 自至月初 至臘月念後罷歸. 一. 凡讀書生 各自其門中隨族 多少加減擇送 而一任意情 不甚留意於文字 上者不須舉論. 一. 居齋諸生 須各立志 牢固毋求近效 惟以遠大自期 而若其治心之方 持己之要 則伊山白鹿等規 昭揭壁上 垂訓丁寧 今不待疊床而自有餘師矣. 一. 學徒中 如有蔑視完議 不專肄業 而徒事諧謔 害及傍人者 諸生自相 曉諭以盡 愷切之義 又自院中訪問 其最甚者 重施儒罰 使得懲勸後人. 一. 本院自此專主勸課而 凡于無益之費 一切掉去 供士等節 亦皆務從簡約 然畧倣館學之例 間五日 進呈別味. 一. 罷齋後飲福 愚伏先生 昔以俗禮 禁止饗堂 而本州各院 率皆遵依 無敢設行 從今本院 亦一體永罷 不復崖異. 一. 每年春初 一度出題 或以詩賦 或以論策 試才高下 賞給有差 毋過二十五人. 一. 每年 享祀時用錢 極其數多 自今以後 (『근암서당창건고적』, 「원중환의」). 『청대일기』에는 1732년에는 10월 28일에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 거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청대일기』 임자(1732) 10월 28일, 12월 8일). 완의와 거재 시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암서원 거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 『청대일기』 기사(1749) 11월 23일.

38) 영빈서당 거접에 참석하였던 권상일은 제술을 거듭 치른 결과 장원을 하였다.(『청대

거접은 1710년(숙종 36)의 역할 분담 이후 주로 영빈서당에서 주관하였다.<sup>39)</sup> 하지만 서당이 협소한 관계로 근암서원과 나누어서 거접 유생들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거접 유생을 공궤하는 일은 서원과 서당의 노복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인근의 대승사와 김룡사에서 거접을 시행하기도 했다.<sup>40)</sup> 거접시 제술은 2일에 한 번씩 진행되었으며, 그때마다 명망있는 장로에게 試券을 보내면, 근암서원이나 영빈서당에 모여서 채점한 후 거접이 끝나는 날 시상을 했다.<sup>41)</sup> 전체 거접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거접을 시행하였던 초창기에는 7~20일간 시행하다가 점차 참여 인원이 증가하면서 5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sup>42)</sup> 이것은 거접으로 인해 사찰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기』 갑신(1704) 5월 26일·27일·28일·29일·30일, 6월 1일·3일·4일·5일·18일) 그 외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인사들이 실제 사마시와 대과에 급제하면서 이곳의 거접이 유명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접에 참여했던 자들의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거접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모두 낙방하기도 했다.(『청대일기』 임오(1702) 6월 10일).

- 39) 『청대일기』 경인(1710) 7월 26일. 작은 면내에서 서원과 서당 모두에서 유생들에게 동일한 방법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두 곳 모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태였다. 권상일이 서원과 서당의 역할을 분립한 것은 서원의 강학·장수처로서의 본래 기능을 지키고, 과업 유지를 통해 서당의 존재 가치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비용의 불필요한 중복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
- 40) 『청대일기』 갑신(1704) 5월 26일·28일·29일·30일, 6월 1일·3일·4일·5일 ; 을사(1725) 6월 7일 ; 정미(1727) 1월 12일·14일·19·20일 ; 병인(1746) 7월 12일 ; 무진(1748) 10월 6일 ; 을해(1755) 7월 7일·10일·16일 ; 무인(1758) 7월 18일.
- 41) 『청대일기』 계묘(1723) 7월 13일~24일 ; 병자(1756) 6월 28일. 서원에서의 거접은 공궤의 어려움으로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병과 같이 특수한 경우로 산사[대승사·김룡사]나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려울 경우 서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룡사, 대승사의 경우 향교나 서원 등의 속사가 아니었기에 관의 紙役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그 일이 고역이라서 승려들이 모두 흩어져 사찰이 텅빈 일이 잦았다(『청대일기』 병자(1756) 9월 23일). 상주에서는 김룡사와 남장사가 재력이 풍부하여 官役에 시달려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두 사찰 모두 승려들이 도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신임목사 元景濂은 이들의 종이 납품을 줄이고 승려들을 불러 모아서 사찰이 다시 운영되도록 했다. 근암서원에서는 김룡사와 동로의 天柱寺 승려를 동원하여 건물의 수리, 유생 거접 등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목사의 조처를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다.
- 42) 『청대일기』 갑신(1704) 5월 26일, 6월 18일. 영빈서당에서 주관한 거접이 대승사에

과거가 없을 때에는 순제를 시행하였다. 면내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순제를 치르면서 한 달에 시부 각 10개씩 제목을 내어 채점하고, 성적에 따라 상으로 종이를 지급하였다.<sup>43)</sup> 뿐만 아니라 백일장을 개최하여 勉學을 장려하기도 했다. 백일장은 관찰사, 상주목사 등의 지방관이 주관하기도 했지만, 향교·공도회·도남서원·영빈서당에서 개최하기도 했다.<sup>44)</sup>

근암서원은 1703년(숙종 29) 서원 재사에서 강회를 개설하였다.<sup>45)</sup> 당시 관찰사 趙泰東이 열읍 유생들의 講經과 제술을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관찰사는 각 면의 훈장이 강경을 담당하고, 제술한 것은 수령이 채점하여 장원한 답안지는 감영에 보내도록 했다. 당시 근암서원 강회는 이러한 연유로 열리게 된 것이다. 영빈서당에서도 강회가 개설되기도 했는데, 근암서원과 이를 조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1748년(영조 24) 영빈서당 강회의 講長으로 초빙된 권상일은 『소학』을 講하고, 背講을 실시하였다.<sup>47)</sup> 같은 해 도남서원에서는 『대학』을 강하였다. 이때 참석한 유생과 童蒙을 구분하여 출제하였다. 이를 보면 서원과 서당에서의 강회는 그 방법이 다소 달랐다. 서원에서는 제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당에서는 배강을 하였다.

1754년(영조 30) 5월에도 근암서원에서 강회가 개설되었다. 당시 강회는 상주목사 沈鏞의 명으로 설행된 것이었다.<sup>48)</sup> 5월 2일에 원임이 모

---

서 5월 26일 시작하여 6월 18일에 마쳤다. 당시 권상일은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7일간 참석했으며, 그 기간 동안 3차례 제술을 하고 이튿날 채점 결과를 받았다. 이때 권상일은 3번째 試製에서 장원이 되었다. 영빈서당에서 주관한 거점이 김룡사에서 7월 11일 시작하여 7월 22일에 마쳤다.(무인(1758) 7월 18일); 을축(1745) 8월 5일.

43) 『청대일기』 계묘(1723) 5월 2일, 7월 7일; 무인(1758) 6월 2일.

44) 『청대일기』 임오(1702) 3월 28일; 계미(1703) 9월 29일; 갑신(1704) 6월 17일·20일; 계사(1713) 2월 14일·20일·21일; 신축(1721) 3월 23일·25일·26일; 을축(1745) 8월 4일·5일·7일; 병인(1746) 2월 12일·15일, 3월 1일; 정묘(1747) 6월 4일; 기사(1749) 6월 6일; 경오(1750) 8월 12일·16일, 10월 17일; 신미(1751) 8월 21일. ; 기묘(1759) 윤6월 13일·27일, 6월 2일·4일.

45) 『청대일기』 계미(1703) 1월 5일.

46) 『청대일기』 계묘(1723) 11월 1일.

47) 『청대일기』 무진(1748) 4월 29일·30일; 기사(1749) 2월 4일.

두 모여 유생이 소재한 면의 서당에 통문을 발송하고, 각 개인에게는 편지를 보내어 17일에 강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16일에 상주목사가 산양현 倉廩에 이르렀고, 다음날에 알묘한 후 『대학』을 강하는데 강장은 권상일이었다. 유생 10인이 차례로 돌아가며 읽었는데, 글의 뜻을 간략히 물으면서 진행했다. 18일에는 講書 한 권을 다 읽고 의문이 나는 곳은 질문 항목을 쓰고, 각자 견해를 종이에 써서 대답하게 했다. 19일에는 『근사록』의 「태극도설」, 「定性書」, 「西銘」 등에서 문장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유생들이 스스로 쓰고, 辨釋 하도록 했다.

이처럼 근암서원 강회는 경전을 통강한 후 의문나는 구절에 대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성리서를 읽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방식은 영빈서당에서 책을 읽고 배강하는 것보다 더욱 수준 높은 강학 방식이었다. 즉 서원은 유생의 장수처로서 수기를 강조한 반면, 서당에서는 기초학문 습득과 과업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서적 간행과 기타 운영

근암서원 원임은 원장-유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사는 2인이었으며, 원장은 洞主, 山長, 首席, 都有司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sup>49)</sup> 근암서원은 도남서원·옥성서원과 함께 일찍부터 상주의 대표적 서원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초창기 근암서원 원장들은 도남서원 원임을 역임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양원을 오가며 향사와 운영에 참여하였다.<sup>50)</sup> 그만큼

48) 『청대일기』 갑술(1754년) 윤4월 27일·29일 ; 5월 16·17·18·19일

49) 이것은 도산서원을 비롯한 안동권의 서원에서 대부분 도유사, 동주 등으로 원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즉 근암서원은 퇴계-서애로 이어지는 상주지역 남인계 서원의 성격을 가졌음을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원장의 역할이 유생들의 강학에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원장과 원유들이 문무 등에서 文會를 열어 시를 짓고, 권상일이 직접 강회를 개최하거나, 시제를 내고 채점하는 데에서 드러난다.(『청대일기』참조).

50) 1723년(경종 3)에는 권상일이 1729년(영조 5)에는 이만부가 도남서원 원장을 역임

원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의 명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원장은 해당 서원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서원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에 전·현직 원장에 대한 예우는 서원의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유사는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기에 이들에 대한 예우도 해당 서원의 형편에 따라 진행되었다.

근암서원의 경우 전임 원장이喪을 당하면 부의를 보내고, 원임이 직접 위문하도록 했다.<sup>51)</sup> 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전 원장의 병환이 심할 시에는 위문하였다. 원장을 역임했던 권상일의 경우에도 영빈서당과 근암서원에서 임원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위문하였다.<sup>52)</sup> 현직 원임의 경우에는 과거에 응시할 때 試紙와 왕복 여비를 지원해 주었다.<sup>53)</sup> 한편 건립 당시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근암서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

---

하였다. 한편 근암서원의 건물과 강화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것에도 원장들의 역할이 컸다. 이만부는 1724년(경종 4) 덕천서원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근암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724년(경종 4)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원의 편역을 새겨 거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직접 김룡사에 유숙하며 편역 새기는 일을 감독하기도 했다. ‘근암서당’편역은 元震海의 글씨인데, 승원하면서 ‘당’자를 ‘원’자로 曹時虎가 고쳐 쓴 것이었다. 그러나 앞의 세 글자와 글씨체가 전혀 다르게 되었기에 ‘당’자를 새로 고쳤다. 또한 동제는 欲仁齋, 서제는 喻義齋, 문루는 知遠門이라 하였는데 모두 이만부가 정하고 직접 쓴 것이다(『청대일기』 갑진(1724, 경종 4)10월 20·21·22·24일). 원장 吳尙遠은 「백록동학규」와 「이산서원원규」 편역을 썼으며(권상일, 『청대집』권11, 발, 「近院學規跋」), 원장 權澣은 강당을 중수 하였다(『근암서당창건고적』, 「己酉七月日 明倫堂重修文」). 1708년(숙종 34)에 명륜당의 한쪽 모퉁이를 수리했기 때문에 1729년(영조 5)에는 나머지 부분을 중수하였다. 당시 원장이었던 권한은 권상일의 叔父였으며, 재임은 高師德, 李寅泰였다. 중수 과정을 보면 7월 10일에 破屋하였으나 農務로 일을 멈추었다가 19일에 서북쪽 2칸을 철거하였다. 서쪽 기와는 새해에 하고, 북쪽 서까래는 補缺하고는 다시 기와를 덮어 마쳤다. 다음으로 동쪽 모퉁이를 수리하여 윤7월 10일에 공사를 마쳤다. 목수는 天柱寺 僧 一淳·省和, 大乘寺 僧 三兼이었다.

51) 一. 院任聞 曾經首席之喪 卽以白紙二束 黃燭一雙 米太眞荏各二斗致賻 存問.(『근암서당창건고적』, 「원중완의」).

52) 『청대일기』 계유(1753) 2월 12일·16일.

53) 一. 院任赴學者 量其往還資 送糧米會行 則加給試紙 及行饌馬鐵等物.(『근암서당창건고적』, 「원중완의」).

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다. 식리도 그 한 방법이었으나 이를 관리하는 원임이 무단으로 행하면서 이익보다는 폐단이 컸기에 18세기 초반부터는 이를 금지하였다.<sup>54)</sup>

이외에도 서원에서는 출판 활동을 통해 제향인의 학문을 계승·확산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서적을 간행하는 데는 막대한 물력이 필요했다. 출판할 서적의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서원 단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서원의 재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서원과 향교, 후손·문인가 및 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암서원은 7인의 제향인이 있었지만 현재 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홍언충의 문집인 『寓庵集』뿐이다. 『우암집』은 홍언충의 종후손이자, 당시 도남서원과 근암서원의 원장으로 재임하던 洪相民·洪相助 형제가 주도하여 1720년(숙종 46) 간행하였다.<sup>55)</sup>

『우암집』은 1582년(선조 15) 충청도관찰사이자 外孫婿인 金宇宏(1524~1590)이 청주에서 遺文을 모아 초간본을 간행 했었지만 임진왜란 당시 散失되었다. 그 후 사림이 여러 문집과 『東文選』 등에서 발췌하여 엮은 몇 권이 당시 근암서원에 있었다.<sup>56)</sup> 그러나 홍언충을 제향한지 약 6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향사에 공궤할 자금도 부족할 만큼 열악

54) 一. 出債之家 或不還報 反懷不平於催督 是則任員自與 而招人之怨怒 無故而起人之過失也 自今切不許貸 杜此兩弊 而如或有犯 則責出其典守者.(『근암서당창건고적』, 「원중완의」).

55) 근암서원 원장 홍상훈은 蒼雪齋 權斗經(1654~1725)에게 『우암집』 서문을 부탁하였다(『근암서당창건고적』, 「與權正言[斗經]書(洪相助)」; 「權正言答書」).

56) 김우평은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장모인 홍씨의 간곡한 청을 받아 청주목사 金仲老에게 일을 맡겨 遺文에 자신의 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이 초간본은 임란을 거치면서 간본이 거의 유실되었다. 그 뒤 1720년(숙종 46)에 이르러 從玄孫 洪相民·洪相助 형제가 문집을 중간하였다. 이본은 缶溪洪氏 世系를 권두에 싣고 권말에 부록을 실었는데, 부록에는 奉安時祭文(金應祖)·近岳書院常享祝文·海東名臣錄·墓碣 등과 제현들의 애모하는 시문을 모았으며, 여기에 權斗經(1654~1725)의 서와 홍상민의 발을 붙여 간행하였다. 그 후 1925년에 洪杰이 경북 문경에서 간행한 『우암선생문집』은 중간본 목판을 그대로 인쇄한 것이고, 각 책 끝에 대정 14년(1925)의 간행 연기가 있다.(『우암집 해제』, 『유교넷』<http://www.ugyo.net>).

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우암집』을 개간할 수 없었다. 그래서 1719년(숙종 45) 근암서원 유생 金命天 등은 관찰사 李堦(1664~1733, 재임:1718.4~1719.2)의 선조인 李荇(1478~1534)이 洪貴達의 문인 있었고, 그의 아들인 흥언충과는 道義로 사귀었다는 관계를 내세워 『우암집』 간행 비용을 지원해주길 요청했다.<sup>57)</sup>

근암서원에서는 관찰사의 지원을 받아서 1719년(숙종 45) 7월 20일부터 판각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력이 부족하여 판각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근암서원은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주와 인근 고을의 각 처에 도움을 요청하여 판각을 이어나갔다.<sup>58)</sup> 하지만 부조의 규모가 작아서 4~5개월이 지나도록 공역을 마치지 못했기에 재차 상주의 각 서당에 도움을 요청하였다.<sup>59)</sup>

당시 『우암집』 책판은 대부분 판각을 완료 하였다. 그렇지만 창고에 보관해오던 『漢陰集』 책판의 상태가 매우 나빠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한음집』 책판은 상주목에서 1634년(인조 12) 간행한 초간본과 1668년(현종 9)의 중간본 판목으로 추정된다.<sup>60)</sup> 근암서원에서는 『우암집』 간행을 위해 공장들이 와있을 때 『한음집』 책판도 보수하길 원했다. 그러나 『우암집』을 개간하면서 모든 재원을 소진한 상태였기에 이전에 조력하지 않았던 서당들을 대상으로 사정을 헤아려서 빨리 도와주길 요

---

57) 『근암서당창건고적』, 「呈巡相文(金命天)」. 1719년으로 연도를 규정한 것은 실제 문집이 간행된 시기가 1720년이며, 근암서원에서 발송한 부조 통문의 내용에서 유추하였다.

58) 『근암서당창건고적』, 「隣邑及本州扶助通文」.

59) 『근암서당창건고적』, 「本州各堂通文」.

60) 『한음집』은 이덕형의 아들이었던 상주목사 李如圭와 선산부사 李如璜이 家藏草稿를 문집으로 간행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이여황이 사망하자 1634년(인조 12)에 이여규가 이준의 발문을 받아 상주목에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그 뒤 손자 李象震이 『승정원일기』에서 遺文을 얻어서, 외손 李松齡이 상주목사로서 문집의 간행을 도모하였으나 세상을 떠나게 되어 중단되었다. 이에 손자 李象鼎이 다시 간행을 도모하여 1668년(현종 9) 용주 趙綱(1586~1669)의 서문을 받고 상주에서 중간하였다.(김기빈, 「해제」, 『한음문고』, 한국고전번역원, 1998). 이들 문집의 판목은 상주목에서 보관해 오다가 1669년(현종 10) 근암서원 승원 후 이관하여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청했던 것이다. 당시 간행을 주도하였던 홍상훈·홍상민 형제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서당의 추가 조력도 원활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근암서원 藏書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종 연간(1863~1907) 간행된 『嶺南各邑校院書冊錄』<sup>61)</sup>에는 서원이 아닌 각 후손가에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IV. 근암서원의 정치·사회적 활동

### 1. 18세기 초반 疏廳의 설치

서원은 일상적 강학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공론을 수렴하여 儒疏를 작성하거나 유벌·부조 등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근암서원에서는 18세기 초반 2차례 疏廳이 마련되었다. 당시 상주지역 향론을 주도하는 곳은 도남서원이었다. 이곳은 17세기에 안동의 병산서원<sup>62)</sup>과 더불어 영남지역 남인의 공론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18세기 들어오면서 노론의 집권과 그들의 지원 하에 상주내 노론계가 크게 성장하면서 향권을 둘러싼 남노간의 분쟁이 심화되었다. 노론계는 홍암서원(1702)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향교와 도남서원의 임원직을 두고 남인계와 대립하였다.<sup>63)</sup> 그로 인해 도남서원은 정상적인 운영

61) 『嶺南各邑校院書冊錄』(규장각 7720). 『한음집』5권, 『청대집』9권 『검간집』3권, 『허백집』3권(홍귀달), 『우암집』2권, 『무주집』2권(洪鎬), 『목재집』7권, 『동암집』2권(洪大龜), 『휘찬려사』24권(홍여하), 『동사제강』7권(홍여하)- 洪錫胤 家藏; 『君臣言志錄』1권 - 蔡得沂가 심양서 가져온 것임, 본손이 보관중임; 『매헌실기』2권 - 정기룡 사적으로 본손가에 보관중; 『병와예설』10권 - (이형상) 永川 본손 李廷模 소장; 『경제잡집설』1권, 『제양록』1권, 『주자어절요』2권, 『이기회편』1권, 『퇴도서절요』5권, 문집 29권 - 이상 6질은 이상정 본손 李永運 소장; 『대동운옥』20권(권문해) 등이 수록되어 있다.

62)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영남 사람들은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공론을 결집 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1611년(광해군 3)의 '晦退辨誣疏'와 1666년(현종 7)의 '服制疏'다.

63) 향교에서는 교임직을 두고 남노 세력이 충돌하였으며, 도남서원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 어려울 정도였기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남인계인 근암서원이 그 역할을 일시적으로 대신하였다.

첫 번째 소청이 설치된 것은 1701년(숙종 27) 「사계승무반대소」를 올릴 때였다.<sup>64)</sup> 1700년(숙종 26) 10월 호남 유생 崔雲翼 등이 상소하여 김장생의 문묘 종사를 청원하자 안동유생들은 승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도내에 통문을 발송하였다. 이들은 11월 예천에 소청을 설치하였다가 다시 안동으로 옮긴 후 1701년(숙종 27) 1월 21일에 疏任을 분정 하였다.<sup>65)</sup> 2월 11일 소행이 출발하여 예천·용궁·상주·근암 등을 거치면서 각각 4~5일씩 머물렀다. 이때 임시 소청을 근암서원에 두고 소행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유생들을 기다렸던 것이다. 당시 소유들과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던 도내 유생들이 의논하여 흥여하의 추향을 결의하였다. 이처럼 첫 번째 소청은 소행이 지나는 경로에 위치한 남인계 서원이었기에 소유들이 모이는 거점으로서 운영되었다.<sup>66)</sup>

두 번째 소청이 설치된 것은 1721년(경종 1) 尹志述의 처벌에 관한 유소를 올릴 때였다.<sup>67)</sup> 경종이 즉위한 후 노론계 성균관 장의 윤지술이 숙종의 誌文을 문제 삼아 유소를 올렸다. 윤지술은 숙종이 장희빈을 죽인 것과 관련하여 그 處變이 도에 합당한 것이자 正道를 호위한 것이라며 이를 숙종의 지문에 넣어 영원히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유소로 경종이 윤지술을 定配하자 성균관과 四學의 유생들이 윤지술을 변호하는 등 노론 세력에 의해 과문이 확산되었다. 이에 경종이 처분을 환수하자 소론 측에서도 정언 趙最壽가 윤지술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

---

었다. 특히 도남서원 원장이 闕位된 채로 향사를 지내기도 했다.(『청대일기』 을사(1725) 2월 17일 ; 병인(1746) 9월 1일 ; 갑술(1754) 12월 6일 ; 을해(1755) 8월 13일)

64) 『근암서당창건고적』, 「道內通文 辛巳(1701)二月」; 金侃, 『竹峯先生文集』卷3, 雜著, 「光陽謫行日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65) 疏首는 金侃이었으며, 장의는 진사 南楚衡·南圖翎이고, 소본은 진사 安鍊石이 지었으며, 寫疏는 진사 鄭天周가 담당했다.

66) 1723년(경종 3)의 「葛庵辨誣疏」를 가지고 상경하는 소행도 근암서원에 이틀을 머물며 소유들을 기다렸다가 출발하였다.(『청대일기』 계묘(1723) 3월 8일, 9일)

67) 『청대일기』 신축(1721) 1월 13일·14일·15일·20일·21일.

와 충청의 유생들이 참형을 주장하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다.<sup>68)</sup> 이때 영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유소가 준비되고 있었다.

영남에서는 안동의 유생들이 윤지술의 처벌을 요청하는 유소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sup>69)</sup> 도남서원에서 소회가 열렸는데 소수 柳夢瑞의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소수를 권점하는 과정에서 안동사립이 주도하던 유소는 중지되었다.<sup>70)</sup> 신임 소수가 권장하여 도남서원에서 근암서원으로 소청을 옮기고 1월 20일에 100여 명이 모여 논의하였다. 소청을 옮긴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상주목사의 위협과 도남서원 내 서인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남인계 서원이었던 근암서원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암서원이 협소하여 40여 고을에서 오는 소유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기에 용궁의 三江書院으로 소청을 다시 옮겼다.<sup>71)</sup> 그곳에서 소수를 포함하여 200여 명이 운집하여, 각처에서 보내온 疏本 5~6개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였다.

2월 26일 소행이 출발할 당시 장의는 金鍾萬과 李德謙이고, 管行은 權重時였다. 그러나 거도적인 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고을의 배소 유생은 안동이 4인, 예천·진주가 2인, 용궁·함창·선산·榮川·영해·영덕·상주·거창·울산 등이 각각 1인으로 모두 30여 인이었다. 상주에서도 처음에는 4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수령의 위협으로 산양에서만 2인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권상일은 배소 유생이 줄어든 원인을 上道の 몇몇 고을 이외에는 모두 새로 임명된 서인계 수령들에게 향교와 서원이 점거당하여 소행의 경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72)</sup> 결과적으로

68) 『경중실록』 권2, 즉위년 9월 7일·9일·10일·11일·15일·20일 ; 10월 7일 ; 11월 4일 ; 12월 16일·17일·28일 ; 권5, 경종 1년 12월 6일·10일·11일·12일·13일·15일·16일·17일.

69) 『청대일기』 신축(1721) 1월 4일.

70) 당시 선발된 소수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청대일기』에는 李叔으로만 나오는데, 칠곡에 거주하는 李世瑗(1667~?)과는 친척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서 산양현 일대에 거주하는 광주이씨 일족으로 추정된다. (『청대일기』 신축(1721) 1월 10일)

71) 『청대일기』 신축(1721) 2월 12일.

72) 『청대일기』 신축(1721) 3월 9일.

이 유소는 승정원에서 봉입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실세했던 남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근암서원은 정치적으로 영남 남인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공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즉 남인계 서원으로서 상주에서는 도남서원을 대신한 집결처가 되기도 했으며, 지리적으로는 소행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여 남인계 소유들의 집결처가 되기도 했다.

## 2. 다양한 향촌 사회 활동

근암서원은 향촌사회의 다양한 현안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1724년(경종 4) 상주 孝谷書院<sup>73)</sup>을 중건하면서 高仁繼를 추향하자는 공론이 있었다. 이에 효곡서원에서는 並享을 결정하고 근암서원에 알려왔다.<sup>74)</sup> 1819년(순조 19)에는 芸齋 蔡蕃疇를 제향하는 일을 논의하기 위해 연악서원에서 글이 왔기에 이를 주변의 서당과 가문에 알리는 통문을 근암서원 원임이었던 權達忠과 金顯奎가 발송하였다.<sup>75)</sup> 이처럼 서원과 사우에 제향인을 추가하거나 신설할 때에는 향중의 공론 수렴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넓고 빠르게 공의를 모으기 위해 향교나 유력한 서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sup>76)</sup> 근암서원은 산양현의 유일한 서원으로 이곳의 사론을 대표하였다. 그렇기에 근암서원 측의 동의를 받는

---

73) 1685년(숙종 11)에 孝谷書堂을 창건하고, 愚谷 宋亮(1534~1618)을 제향하였다.

74) 『근암서당창건고적』, 『通孝谷文』. 나아가 1725년(영조 1)에는 신재 周世鵬과 開巖 金字宏을 제향하는 일로 옥성서원에서 통문을 내고, 권상일에게 주세붕을 주향으로 송량, 고인계, 김우평을 동서로 배향하는 것을 稟議하였으나, 주세붕과 김우평 후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청대일기』 을사(1725) 3월 28일, 4월 7일)

75) 『近岳書院通文』(己卯(1819) 10월 25일). 권달충은 松巢 權宇(1552~1599)의 7세손이며, 운재 채시주는 권상일과 이상정의 문인이었다. 현재 채시주를 제향처하는 곳이 없기에 당시 논의는 무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76) 이병훈,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근암서원도 1702년(숙종 28) 홍여하와 김홍민을 추향하는 일로 통문을 내어 옥성서원에서 향회를 개최하였다. 『청대일기』 임오(1702) 2월 26일).

것은 산양 유생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고인계, 채시주 등과 같이 근암서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제향 시에는 서원 측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그런가 하면 여론을 모아 儒罰을 시행하기도 했다. 1753년(영조 29)에는 성주 유생들과 군위 南溪書院에서 좌수 申漢台가 선현인 李堧을 침해하여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문을 근암서원에 보내왔다. 이에 8월 2일 근암서원과 도남서원 원임들이 齊會하여 신한태는 아뢰어 말할 때 가려서 責善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永削’하고, 유림 李增淑은 애초에 잘 처리하지 못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초래하였다는 죄목으로 ‘擯徒’한다고 결정하고 각 서원에 통문을 보내었다.<sup>77)</sup> 남계서원은 류성용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그의 제자인 이전을 모욕한 신한태에 대한 처벌을 이전의 고향인 상주의 도남서원과 근암서원의 남인계 서원에 의견을 문의했던 것이다. 두 서원에서 합의하여 유벌을 결정한 것은 근암서원이 도남서원과 더불어 상주목 남인계를 대표했던 곳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1746년(영조 22) 경주 옥산서원에서 보내온 통문에서도 확인된다.<sup>78)</sup> 이전인의 후손들이 추향 때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주부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서손들이 향사를 주관토록 했다. 이처럼 서인계 수령과 서손들에 의해 옥산서원의 주도권이 위협을 받자 옥산서원 원유들은 도내의 남인계를 중심으로 공론을 형성하여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근암서원의 대응은 확인되지 않지만 경주부윤의 부당한 처사와 서손들의 무단행위를 성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1753년(영조 29) 3월에는 전임목사 金光遇의 공적을 새겨 거는 일로 향청에 통문을 내기도 했다.<sup>79)</sup> 김광우는 목내선의 질손으로 남인계 수령이었다.<sup>80)</sup> 상주의 수원인 도남서원이나 향교, 향청 등에서

77) 『청대일기』 계유(1753) 2월 26일, 4월 9일, 8월 2일.

78) 『청대일기』 병인(1746) 4월 21일.

79) 『청대일기』 계유(1753) 3월 11일.

80) 『청대일기』 을해(1755) 8월 13일.

이를 추진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만 당시 원임과 향임 선발로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근암서원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sup>81)</sup> 또한 근암서원은 正謁禮을 거행한 후 鄉約을 행하고, 面約正을 선발하면서 향풍의 진작에 기여하기도 했다.<sup>82)</sup>

한편, 국상이 있으면 상경하기 어려운 경우 殿牌가 있는 객사에 나아가 哭禮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거나 여타 사정으로 가지 못할 경우 서원에 모여 곡례를 행하였다. 이때 전직 관료가 哭班을 담당했는데, 근암서원에서도 수십 명의 유생들이 모여서 국상 때 곡례를 행하였다.<sup>83)</sup> 이외에도 근암서원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향내의 일에 출자하기도 했다. 현내의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회를 열거나,<sup>84)</sup> 수계소의 경로회에 매년 곡식 10섬을 내어 춘추의 모임에 쓰도록 했다.<sup>85)</sup> 또한 1789년(정조13) 玉洞書院이 사액을 받았을 때에는 동전 2궤미[緡銅]를 보내어 축하했다.<sup>86)</sup> 이상과 같이 근암서원은 향촌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거나 부조하는 등 당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근암서원이 정치·사회적 현안을 외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V. 맺음말

근암서원은 7인의 유현를 제향하면서 그들의 후손과 지역 유생들의 협조로 운영되어왔다. 어느 특정 가문이 주도하지 않았기에 여타 서원과 달리 문중서원화 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지원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

---

81) 『청대일기』 계유(1753) 3월 7일.

82) 『청대일기』 갑술(1754) 1월 5일.

83) 『청대일기』 정축(1757) 2월 22일·23일·27일 ; 4월 1일·2일·5일 ; 6월 2일·3일·4일 ; 7월 10일 ; 12월 9일 ; 기묘(1759) 5월 1일

84) 『청대일기』 병자(1756) 11월 9일.

85) 『청대일기』 무진(1748) 10월 6일.

86) 『옥동서원 사액일기』 1789년 3월 28일(영남권역자료센터)

로 인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립 이래로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였다. 노복과 전답은 거의 없었고, 원생과 원생으로 받은 이들도 수시로 군역에 침해를 당하였다. 그래서 지방관의 恩典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죽림서당 시절부터 획급 받은 인근의 미면사는 규모가 작았음에도 서원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풍산류씨 가문의 묘소가 들어서면서 승려들이 도산하고, 속사인 미면사 역시 폐찰이 되었다. 다시 사찰이 복구된 후에는 그곳의 승려와 사위전의 수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암서원은 인근의 영빈서당과 더불어 산양현 유생들의 강학처로서 기능하였다. 유생들의 거재와 강회를 주도하고, 영빈서당과 더불어 거접과 순제를 시행하면서 물력을 보조하는 등 문풍 진작에 일조하였다. 또한 『우암집』을 간행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는 노력을 경주 하였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영남 유소의 소청이 두 차례 설치되기도 했다. 비록 여론을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소유들의 집결처로서 기능하였다. 한편으로는 향촌사회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양현 사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이를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근암서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서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주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20년 5월 1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近岳書堂創建古蹟』(이수환 소장 복사본), 『近岳書院事蹟』(이수환 소장 복사본), 『玉洞書院 賜額日記』(이수환 소장 복사본), 『嶺南各邑校院書冊錄』(규장각 7720), 『淸臺日記』(權相一, 한국국학진흥원 번역본), 『駿奔錄』(청대 권상일 후손가 소장), 『商山誌』(1928), 『淸臺集』(權相一), 『竹峯先生文集』(金侃)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김순한, 「18세기 후반 상주 옥동서원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김형수, 「17·18세기 상주 선산권 지역 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송석현,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 활동」, 『민족문화논총』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이병훈,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4, 한국서원학회, 2017.

이병훈, 「16~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 -조선후기 서원 변천의 한 사례」, 『영남학』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우인수, 「영남 남인 권상일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위상」, 『민족문화논총』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영남권역자료센터 (<http://yn.ugyo.net>)

유교넷 (<http://www.ugyo.net>)

Abstrac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peration of Geunam Seowon[confusian academies in korea] in Mungyeong from 17th to 18th Century

Lee, Byoung-hoon

Mungyeong Keunamseowon was developed in Jookrimseodang and established by Shinjam, governor of Sangju, in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As Keunamseowon enshrined the religious rites for seven Confucians, it has been operated by the cooperation of their descendants and the Confucian scholars of Sanyanghyun. Unlike any other Seowon, it does not belong to one family because one specific family didn't take the lead on it, and it wasn't actively supported. As a result, in spite of various efforts, its economic foundation has been weak since it was established. There were few servants and farmland, and students were frequently invaded by the military. Consequently, it had to rely on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Mimyeonsa Temple nearby, which has been distributed since the time of JookrimSeodang, has been taking up a large part of Seowon's finance even though Mimyeonsa was a small size. Despite this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KeumamSeowon functioned as an academy (Ganghakcheo) for Sanyangcheon scholars of Confucian thought, along with Youngbinseodan nearby. It led the boarding (Geojae) and collective lectures (Ganhwye) and contributed to promote academic

spirit, such as supporting materials by carrying out contests (Geojeob) and tests (Sunje), along with Youngbinseodang.

In publishing Uamjip and Haneumjip, it also made efforts to succeed to the ideas and learnings of Hong Eun-choong, and Lee Deuck-hyung, who were enshrined.

**keywords :**

Geunamseowon, Youngbinseodang, Mimyeon Temple, Cheongdae Ilgi(Diary of Kwon Sangil), Geunamseodang founding diary